

2020 설날가정예배순서

(1)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2020년 한 해 동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1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기도가족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4) 성경 에베소서 4장 22-24절(가정판)

22. 너희는 율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 설교 새사람을 입으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욱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새해에 꼭 어울리는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2~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새로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새로움’은 무엇일까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24절)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창조는 우리를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 없는 존재를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봅시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사람에게 속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22절)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옛 사람에게 속해있던 행동들을 버려야 함을 뜻합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옛 사람의 생활방식에 얽매어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가족 여러분은 옛 기준을 버리고, 새 기준을 택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옛 사람에게 속한 행동을 버려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에게 속한 행동을 버리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합니까? 23절입니다.

3. 매일 매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23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허망하고 썩어지는 것들에게서 돌아서고,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사람들이 옛 사람에게 속한 행동을 버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예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경험하는 2020년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 송370장주인에있는나에게

-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아멘)

7. 주도는 다같이 주님께서그토록신도로예를마치셨는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